

라오스에 핀 자비의 꽃

태고종 나누우리 밴마우스초교 건립·기증

태고종이 첫 해외구호 지원사업으로 진행해 온 라오스 초등학교 건립공사가 화려했다.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이사장 월운)는 6월 22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시앙은시 나누우리 밴마우스 초등학교 교정에서 준공식을 봉행했다. 2010년 10월 17일 기공식을 가진지 8개월만이다.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 스님은 준공식사에서 "수행자라면 출선수범해야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봉사"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관계자와 나누우리 회원의 노력과 탐의 결실이 밴마우스 초등학교라는 초석을 놓았으니 이 결실이 영원한 인재양성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탄문평 루앙프라방주 교육청 책임비서는 루앙프라방 주지사를 대신해 이사장 월운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탄문평 책임비서는 기념사에서 "나누우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자세히 알게 됐다"며 "이곳의 어린이들은 나누우리 회원들의 자비정신에 따라 남을 도울 줄 아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식에 앞서서는 학교 교정에 부처님 불상 점안의식이 한국불교 전통의식으로 봉행됐다. 이날 나누우리 밴마우스 초등학교에 봉안된 불상은 석가모니 좌불로, 나누우리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한국에서 제작해 이운한 것이다. 불상은 좌대 포함 1m 30cm 크기이다. 나누우리 회원들은 준공식에 이



나누우리가 라오스 지역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모습.

어 지역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사장 월운 스님은 초·중학생들을 위한 구충제 600통을, 부이사장 스님은 위생구급함과 구급약품 등을 전달했다. 이어 회원들은 책걸상 세트 침판 공책 등 교육기자재와 티셔츠 등을 전달했다.

한편, 나누우리 밴마우스 초등학교는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루앙프라방시에서 40분 거리에서 열린다. 특히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 등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섭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나존자를 찾아서

“도반에 대한 믿음이 중요”

‘금강 합창단’ 안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봉사팀

안산 지역 사찰 연합 합창단 성격인 ‘금강 합창단’은 조별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안산부곡종합사회복지관 봉사팀은 매월 1회 복지관 식당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복지관이 개관하던 2005년부터 6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봉사에 참여해 왔다.



“몇 년째 활동하고 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직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장태선씨는 올해 65세로 봉사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사회적으로도 봉사를 받아도 될 나이에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다른 봉사자들의 귀감을 사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보림 스님의 소개로 복지관과 인연을 맺었다. 보림 스님이 안산 보문선원 주지로 있을 당시 인연을 맺게 돼 스님에게서 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안산 사할린 마을 돌기 등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있던 스님은 현재 안동 연미사의 주지로 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몇 년째 합창과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서로를 도반으로 느끼며 항상 존중하고 있다. 혹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마음도 닦고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익힙니다. 타인이 행복하기를 보면서 뿌듯해 하고, 피곤한 것도 잊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봉사활동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한다고 믿으며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봉사활동은 해야 할 일의 하나일 뿐이다. 어르신들이 다소 까탈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자애로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미소를 지어 보인다.

합창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들은 무엇보다 소홀히 하지 않는다. 매주 수요일이면 2시간 정도 함께 합창 연습을 하고, 안산은 물론이고 논산 훈련소 수계식, 여수 엑스포 개막식 등 전국 각지의 불교 행사에도 참여한다. 올해 10월에는 안산예술의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도 개최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봉축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동국대 앞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합창 실력을 선보이며 수많은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이계순씨는 “환희심이 절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자들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준비해 온 것도 정말 대단했습니다”라며 그 당시를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더 많은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박정숙씨는 “봉사활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 번만 시작을 해보면 쉽습니다. 남을 돕는 기쁨을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불자경제인들 사회적 실천 더 키우고 넓혀야

빈부의 격차, 양극화 갈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인간정신의 개발을 제정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를 따르는 불교인들의 대 사회적 실천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불교계 안팎에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두 '경불련'이 각각 20주년 1주년을 맞았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동 대표 최·지현)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7월 13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불교계 최초의 NGO 단체로서 지나는 20년의 성과와 역할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길 향한 재정립하고 기존 봉사자와 회원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1991년 7월 13일 탄생한 불교계 최초의 시민운동단체로 여러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됐다. 산하 법인(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지현)을 만들어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희망만들기 방

과 후 교실 △네팔 현지 NGO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 △실직자들을 위한 '아침을 여는 집' △외국인노동자 인권센터 등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기아와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한편 7월 7일 남산 리엔에서는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회장 구자선, 경불련)가 창립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불련은 5월 19일 조계종 신도단체에 등록된 이후 동국대 제2건학기금 모금인 'RE-START DONGGUK' 등 많은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남, 전북,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경불련지역회를 발족 추진 중이다.

이날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부처님은 경제에 있어 ‘수익의 4분의 2는 재주자에 쓰고, 4분의 1은 생활비로 쓰고, 4분의 1은 이웃에 쓰라’고 하셨다”라며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세속의 경제와 불행 경제의 차이를 알고 자신의 할 일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은·이은정 기자

원각사 불교스카우트 발대식 개최

7월 16일 원각사에서 봉행

홍법사, 청계사에 이은 세 번째 불교스카우트 발대식이 일산 원각사(주지 정각)에서 봉행된다.

일산 원각사는 7월 16일 오후 7시 원각사 대웅전에서 원각사스카우트 발대식 및 선서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각 스님을

육성단체 대표로, 컴스카우트 12명, 스카우트 6명, 벤티스카우트 2명의 대원들과 내빈들이 참석해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각사 측은 “이날 정각 스님이 전 대원들과 대장들에게 단복을 기증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불교스카우트 대원이 될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정 기자

‘비만’, 템플스테이로 해결하자

양주 육지장사는 7월 25일~8월 5일 청소년 비만 치유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육지장사 다이어트 템플스테이’는 오늘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와 비만을 해소하는데 스님들의 전통적인 수행법들을 통해 비만치유를 돕는다.

템플스테이는 파비스월드 비만관리 애니멀프로그램을 결합해 정신수양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이미 50만 명 이상 체험해, 비만해소와 건강회복 효과를 거둔바 있다.

육지장사 측은 “한국의 밝고 경쟁력 있는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다”며 “비만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삶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31) 871-0101 이은정 기자

연등축제 시상

부처님오신날불교문화위원회(위원장 자승)는 7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2011 연등축제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마음선원 합창단과 봉은사 신도회 등 7개 단체가 정진상을, 수국사 어린이회, 화계사 어린이회 등 7개 단체가 보현상을, 영화사 방생회 등 6개 단체가 원력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이날 정진상 등을 수상한 한마음선원 합창단과 청년연희단 서연주 씨 등이 수상 후 기념촬영한 모습.

글=이은은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처님을 찾아서

스님들과 함께 떠나는 불교 성지 순례단

1차 성도, 티벳(라사), 아미산, 낙산 대불 6일 (확정)
출발 : 2011년 8월 17일(수요일) 인천 출발
동참금 : 2,050,000 원 (일체경비포함)
접수마감 : 7월 24일 (일요일)

2차 중국,위해,석도,연대 (장보고 유적지) (예정)
출발 : 2011년 10월 4일(일요일 부산출발).
국적기 이용
동참금 : 890,000 원 (일체경비포함)
접수마감 : 9월 4일

3차 출발 10월 23일. 출발예정

*15명이상 단체는 언제라도 출발가능 하오니 문의 바랍니다.

단기출가자 및 행자 모집

- 기간 : 일주일 이상 자유, 전액무료
- 대상 :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행자 생활에 준하며 사찰의 기도, 참선, 공부, 율력 등 모든 수행에 동참
- 단체 시간외 1인 1실, 숙박
- 수련 후 바로 출가할 경우 모든 뒷바라지
- 대구권결과 감포 무문관 선방에서수행

* 행자(예비스님)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무문관 재가수행자 및 스님 모집

- 입방 후 문 폐쇄, 하루 한끼 공양 제공
-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 기간 : 보름이상 자유
- 입방날짜는 개인별로 함
- 동참금 있음
- 문의 : 054)753-8228

* 감포무문관에서 동안거 입방하실 스님 모집합니다.
• 대상 : 법랍 10년 이상인 비구, 비구니
•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2488-8228

회주 우학스님의 신간
“하루 한가지 마음공부법”, “감사하고 사랑하며”

쾌적한 법당형 극락 납골 봉안당
문의 : 053)474-8228, 010-6296-0108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여행사 **JCC**
전화 02)778-5412 / 팩스 02)771-7165
김재한 010-5514-7852